

# Z세대 80% “年2번 이상 여행”... ‘SNS·유튜브’로 정보습득

## Z세대 43%, 올해 국내 여행만 계획 국내·해외 따라 이용 플랫폼은 달라

Z세대 10명 중 8명은 1년에 2번 이상 여행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확인한다. 다만 여행 장소에 따라 활용하는 플랫폼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생활 플랫폼 에브리타임 운영사 비누랩스가 ‘Z세대 트렌드 리포트: 여행편’에서 공개한 조사 결과다. 비누랩스 인사이트 팀은 지난달 에브리타임 서비스를 통해 전국 20대 대학생 남녀 각각 500명씩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6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는 인생에서 여행은 ‘꼭 필요한 활동 중 하나’라고 답했다. 10명 중 8명이 실제로 1년에 2번 이상 여행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여행 계획(중복응답)을 살펴보면 국내만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많았다. 국내외 해외 모두 계획 중이라는 응답은 26%, 해외만의 경우는 16%로 조사됐다.

올해 여행 계획이 없다는 응답도 15%로 적지 않았다. 여행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응답이 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4%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44%는 ‘여행 비용이 비싸서’라고 답했다.

Z세대는 여행 관련 정보를 주로 SNS와 유튜브,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했다. 국내외 해외 등 여행지에 따라 주로 검색하는 채널이 다르게 나타났다.

국내 여행의 경우 주로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에서 여행 정보를 검색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7%로 가장 높았다. 이어 ▲포털사이트(24%) ▲유튜브(19%) ▲네이버 지도 등 지도 애플리케이션(13%) 순이었다.

해외 여행의 경우 유튜브(31%)를 가장 많이 활용했다. 포털사이트(25%), SNS(15%), 지도 앱(7%)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사용하는 이유를 채널별로 살펴보면 SNS는 특별한 장소에 대한 정보와 탐색을 위해, 포털 사이트는 많은 여행 후기를 살피기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튜브 채널은 여행 코스 관련 정보가 많은 점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지도 앱은 이용 후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한다.

여행 시 주로 사용하는 숙소 예약 플랫폼도 국내외 해외 여행이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국내 여행 시 아놀자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2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네이버 예약(24%) ▲여기어때(17%) ▲에어비엔비(12%) 순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Z세대는 국내 숙소 예약 플랫폼의 주 사용 이유로 예약, 결제 등 편리한 사용성과 다양한 후기, 혜택 등을 들었다.

특히 아놀자, 네이버 예약, 여기어때를 이용하는 이유는 ‘예약, 결제가 편리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53%, 63%, 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에어비엔비의 경우 ‘숙소 종류가 다양해서’, ‘숙소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라는 응답이 각각 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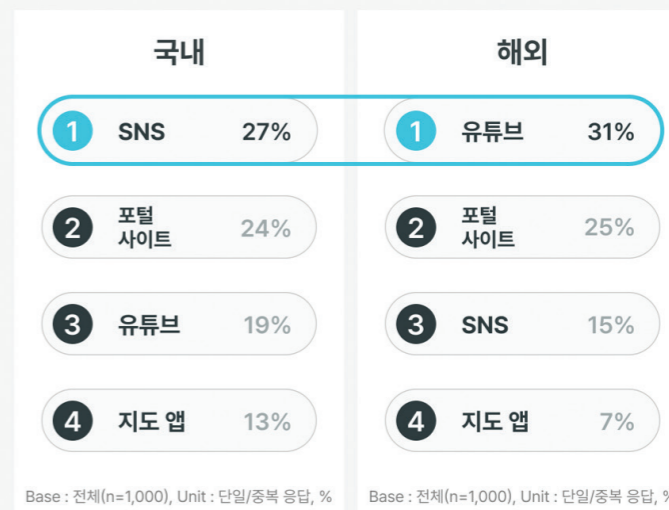
해외 여행은 에어비엔비(19.8%)와 아고다(19.6%)의 이용이 많았다. 네이버 예약(13.1%), 아놀자(11.7%)가 뒤를 이었다. 주 사용 이유로 에어비엔비는 ‘후기가 많고 믿을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아고다와 네이버 예약, 아놀자는 검색, 비교, 예약 등의 편의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여행·숙박 예약 플랫폼에서 향후 가장 기대되는 기능으로 ‘추천’ 서비스를 선호했다. ‘예산에 맞는 여행 코스 추천’ 기능이 62%의 응답자가 원했다. ‘숙소 주변 맛집/관광 추천’ 기능이 56%로 뒤를 이었다.

반면 ‘여행지 별 커뮤니티·친목’ 서비스는 16%로 가장 선호도가 낮았다. 여행 성향에 대한 질문에서도 ‘여행에서 만나는 새로운 인연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응답은 43%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여행지에서의 소셜 네트워킹

VIN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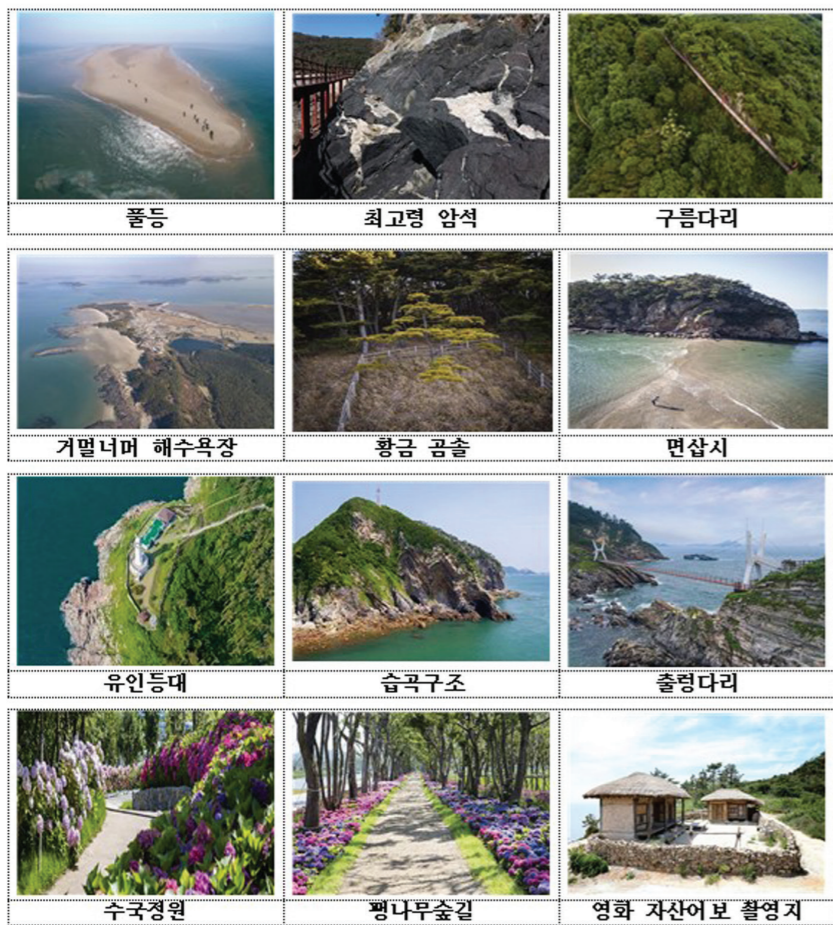
### Z세대 여행 시 정보 탐색 채널



Z세대 여행 시 정보 탐색 채널 조사 결과. (인포그래픽=비누랩스 제공)

에 대한 Z세대의 선호는 낮은 것으로 추측된다.

기동취재본부



## “올여름 섬캉스 떠나보세요”...가볼만한 곳 5곳 선정

올해 여름 휴가철에는 이색 섬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행정안전부는 섬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2023년 찾아가고 싶은 여름 섬’ 5곳을 선정해 6일 발표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부터 섬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계절마다 가볼만한 섬을 선정·소개해오고 있다. 올여름 섬 선정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도 참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섬은 인천 옹진군 대·소이작도, 충남 보령시 삼시도, 전북 군산시 말도·명도·방축도, 전남 신안군 도초도, 경북 울릉군 울릉도이다.

대·소이작도는 수도권에서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는 곳 중 하나다. 하루에 단 두 번만 관측할 수 있는 모래사장인 풀등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 등 이색적인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다.

삼시도는 충남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 섬의 지형이 화살이 쏘듯 활(弓)의 모양과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돌레길을 따라 트레킹을 하면서 거말너머 해수욕장, 염록소에 의해 황금빛을 띠는 소나무인 황금 곰솔, 조수간만에 의해 삼시도와 연결되는 섬인 면삼지, 썰물 때만 드러나는 바위인 물망터 등을 구석구석 구경할 수 있다.

말도·명도·방축도는 여러 섬이 가지는 특색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어 올 초 문체부의 ‘K-관광선 사업’ 대상지로도 선정된 곳이다. 여름에 울창한 천년송 사이에 위치한 유인등대, 천연기념물인 말도 습곡구조, 섬을 잇는 출렁다리 등을 즐길 수 있다.

도초도는 자산어보 등 영화 촬영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수목이 무성해 붙여진 이름처럼 매년 6월이면 수국정원에서 100여 종의 수국을 볼 수 있고 마을 전체에는 팽나무 숲길이 펼쳐진다.

울릉도에서는 해안 산책가를 따라 천혜의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다. 오는 8월 섬의 날 국가행사 개최를 앞두고 풍성한 볼거리가 준비돼 있다.

여름 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관광공사의 여행 정보사이트인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섬 홍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What.섬’을 팔로우하거나 여름 섬을 방문해 인증하면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기동취재본부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인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